선민 자본주의

(신명기 15:1~23)

1. 매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2.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3.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4-5.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선민 자본주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선민 자본주의'
선민의 삶의 방식을 형식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의 제목입니다.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명확하게 구분하십니까? 자산은 내 것입니다. 부채는 남의 것입니다. 자본은 순수한 내 것입니다. 내 것과 순수한 내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내 명의로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는 내 명의로 샀으므로 내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를 살 때에 1억을 은행에서 빌렸다면 1억은 자산 속에 들어있는 부채가 됩니다. 그리고 4억은 순수한 내 것으로서 내 자본입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 위에서 자본주의는 내 자산이나 자본으로 더 많은 이윤(자본)을 얻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경제체제로 쉽게 말해서 내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 것 삼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민 자본주의란 무엇일까요? 돈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선민에게 자본이 되는 것을 벌어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인데 선민의 자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선민의 자본이고, 선민의 자본인 하나님을 번다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일까요? 광야 사십년을 생각해 봅니다. 250만 명이 먹고 마시고 입는데 드는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 수조 원까

지도 될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십년 동안의 광야생활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자본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본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댈 수 있는데 실제로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자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뿐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도 가나안 일곱 족속이 이미 문명화된 국가체제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쳐서 무찌르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선민을 가려내 구원하시기 위해 주어진 자본은 하나님뿐이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아버지 외엔 다른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민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자본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세상이 말하는 자본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본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말하는 돈이 아니고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다른 재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자본이 되셔서 뜻을 발동하시면 세상 돈으로 수천억이든 수조원이 드는 일이든 하나님이 다 동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 자본주의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기본인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들어와서 복지를 더 늘리거나 하지만, 선민들은 민주주의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자본주의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선민 자본주의로 살아가는데 자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재화이신 하나님을 버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재화'라고 하니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13:44~46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하십니다. 농사꾼이 다 팔아서 밭에 보화를 사고 진주장사가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데 하나님이 재화입니다. 하나님을 버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선민 자본주의를 사는 것입니다.

요즘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라는 젊은 경제학자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써서 경제학계에 큰 선풍을 일으키는데 "1:99의 사회"라는 말로 "소득 분배의 균형이 깨진 상태로 부익부빈익빈의 정도를 점점 더 심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이 소득 분배의 해법이 모두의 관심사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소득과 분배의 해법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말은 못해도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는 선민 자본주의에서도 주님이 인정하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13: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한 번 말씀하신 것도 부족해서 마25:29절에서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을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을 더 많이 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갖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버리고 말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선민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위해 발버둥치는 이상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벌기위해 발버둥을 치는 삶이고 이게 선민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선민은 자본주의체제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본이신 하나님만 넉넉하게 있으면 세상적인 자본으로 환산해서 얼마가 들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 돈이 있고 없고를 따질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 벌기에 매진하며 선민 자본주의를 살아가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뜬금없이 선민 자본주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선민 자본주의'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지요? 저도 처음 만들어봅니다.
1~3절을 보면 '매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고 하십니다.
'빚, 채주(채권자)'라는 경제학적 용어들이 나오고 '빚을 독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빚을 주었는데 칠 년 째 안식년이 되면 '이방인에게는 빚을 독촉해도 되는데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고 하십니다. 이방인과 형제를 이렇게 차별해도 싶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 칠 년 끝'이라는 것은 칠 년 째 되는 12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칠 년 단위로 해를 계산하고, 일 년 중에서는 칠 일 단위의 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칠 년 단위가 되는 마지막 년 수이니 칠 년 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는 도대체 안식년의 면제에서 '안식과 면제'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면제하라는 것이고, 선민과 이방인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 면제가 형제를 위한 면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면제라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선민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갈 마음의 준비를 갖춰봅니다.
'안식년에 면제하는데 이방인에게 꾸어준 돈을 면제할 것이 아니라 형제(선민)에게 꾸어준 돈만 면제하라'고 하시는데 선민과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선민의 증표는 할례와 안식으로 두 가지입니다. '할례'가 제정될 때를 보면 창17: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하라"고 하시는데 선민의 실존을 규정하는 말씀으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하라'는 말씀은 '내 앞에서 행해야 하는 선민은 할례를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할례가 의미하는 바는 '선민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떤 대상과 만나든지 하늘에 계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시에 그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승천하는 말로 표현하지만, 하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3차원과 겹쳐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4차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3차원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나 일을 만날 때 함께 계심으로, 선민의 실존은 몸으로 만나는 이 세상의 대상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뜻을 내가 만나는 대상에게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총알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대상은 과녁이 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하라’고 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라’는 애깁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이 균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균형이 깨어진다.’는 것은 나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몸으로 만나는 이 세상 사이에 끼어있는데, 이 양자 사이의 균형관계가 깨어지면서 세상 대상과의 관계를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께만 올인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 친밀함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친한 사람, 적게 친한 사람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친척이 친해도 가족보다 친할 수는 없고 친척보다 친구가 더 친할 수 있습니다. 이 친밀함은 내 마음에 깊이깊이 들어오고 많이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은 하나님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벌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나의 자본으로서 내가 번만큼의 하나님을 쓰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벌지 않으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할 수가 없고 친하지 않으니 그 뜻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라는 자본이 없으면 십계명도 수행해 나갈 수가 없고, 선민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빈약하기 때문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벌면 선민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자본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면, 나가서 사람과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쏘면서 또한 뜻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번 자가 하나님의 뜻까지 버는 것이고, 하나님을 적게 번 자는 그 뜻을 행하지 못하면서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과 사건을 만나는 것이 귀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벌고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고,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제시된 안식의 의미가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안식년과 안식일에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균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후4: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이 땅과 하늘 사이의 균형을 깨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엡2: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하늘에 앉히신 상태이므로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뜻을

벌고,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시는데 또 하나님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고 하시면서 '이웃에게 면제를 행하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놓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합니다. 빚을 칠 년 마다 면제해주면 누가 사유재산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완전 면제가 아니라 안식년에는 독촉만 하지 말라는 말이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독촉을 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빚을 면제시켜줘야 한다면 누가 돈을 꾸어주겠느냐고 합니다. 당장 형제가 굶고 있어서 돈을 빌리러 왔는데 며칠 뒤에 안식년이 시작된다면 며칠 만에 내가 꾸어준 돈을 못 받게 될 텐데, 결국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선민사회에서 사라질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길들여져 있고 그 옛날에도 자본주의라는 말은 없었지만 내 돈, 네 돈이 있었으면 자본주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돈으로 장사한다는 얘기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이천년 전에도 사천년 전에도 다 장사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막벨라 동굴을 살 때도 돈을 주고 내 명의로 삽니다. 돈 주고 사서 내 것이 된다면 자본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내용을 오해하는데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느냐면, 안식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 논리와 면제가 묶여있으므로 '이방인과 형제의 차별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는 선민이고 선민의 증표는 할례와 안식입니다. 나에게 빚을 진 형제도 선민이므로 할례와 안식이 기본 증표가 됩니다. 채무자도 하나님과 채무와의 사건 사이에 끼어있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되어서 모든 선민은 세상과의 균형을 깨고 하나님께 올인 하면서 하나님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어도 형제에게 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한다면 '그 형제가 세상과의 균형을 깨고 하나님께 올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해 면제를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형제도 선민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벌어야 하는데 내가 빚을 독촉하므로 빚에 얽매여서 이 세상에 대한 끈을 끊고 하나님께 올인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차별을 두는 것은 이방인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벌어야 한다.'라는 선민 자본주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인 형제가 내게서 빚을 졌을 때와 이방인이 빚을 졌을 때는 다를 수밖에 없고 '형제의 빚을 면제하라'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을 벌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형제에게 하나님을 벌게 하기 위해서 내 돈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측면의 하나님 벌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벌기'에는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해집니다. 내가 벌기와 형제를 통해 벌기가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대해 죽고 구름 위 하나님께 가서 머물며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법니다. 또한

이 땅에서 내 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며 또 하나님을 벌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벌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버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고 또한 이웃을 통해서 내가 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벌듯이 이웃이 하나님을 벌도록 이웃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고 빚진 것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데 내가 이웃의 빚을 면제해줌으로서 빚의 얽매임으로부터 풀려나서 그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많이 벌게 되면, 그 사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금광을 발견한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이웃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많이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금광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는데 ‘너로 인해서 네 이웃이 나를 벌게 될 때에 너의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나라에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줄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의 돈 아까워하지 말고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빚을 면제해준다’라는 것은 내 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지불해서 하나님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는 것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위해서 내 재산을 다 써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벌게 하기 위하여 형제가 진 빚을 탕감해 주어서 얽매인 상태를 끊어주고, 그 형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차면 그것이 또한 내가 하나님을 버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남편이 인정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회사의 회식자리에 갔더니 남편 밑에 있는 과장도 와서 우리 부장님 최고라고 하고, 그 위의 상무님과 이사님도 오셔서 남편 되시는 분이 보통 훌륭한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편이 들어있는 것을 보니 남편이 점점 커져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기뻐지는데 이게 남편을 버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식의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자식이 좋은 이미지로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내가 자식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다른 입사동기들보다 먼저 인정을 받아서 승진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식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 올라가고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벌기를 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내 아들딸을 보고 ‘우리는 그대의 아들딸이 없으면 안 되고 그대의 아들딸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의 아들딸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다. 당신의 아들딸 없

으면 나는 못 산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다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이젠 못살아' 라고 하는 것을 왜 기대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이렇듯 '돈을 쓰면서 하나님을 벌라'는 이야기를 빚의 면제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손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벌기에 매진하는 것을 들으니 기뻤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니 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을 번 이야기를 하니 그분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번 것입니다. 서울로 올라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참 행복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돈 써가면서 하나님을 벌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 금광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버는 것을 기뻐하다보면 광야 사십년의 삶이 수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 그런 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뿐이지 내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전도하시는 분들도 결국 하나님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원초적인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며 버는 것입니다. 돈만 알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아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돈을 제치고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버는 것에 매진하다보면 이 세상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맥락으로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뻗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듯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노예가 되도록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돈 벌기 위해 일평생을 매진하는 사람들처럼 선민 자본주의의 앞잡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자본을 벌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끊임없이 하나님 존재를 벌고, 이 땅에서는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벌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함을 통하여 그 사람도 마음이 구름위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 존재를 벌고, 그 사람 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버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벌도록 도와줄 때에 나도 계속 하나님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부자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익부빈익빈인 것입니다.
돈만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는 것입니다. 저는 벌써 꽤 많은

하나님을 벌었습니다. 오늘의 번제를 함께 하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매진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부자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민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돈을 하나님을 벌기 위해 포기하고 마구잡이로 쓰는 것인데 유무상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 핍절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해주며 하나님 사랑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핍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만 전해도 되지만, 핍절한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구제와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균형이 깨져서 핍절한 것을 해결하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도 실패입니다.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말씀처럼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먹고 사는 일에 매여 버립니다. 그러므로 구제와 더불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 금광 찾기입니다. 선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봉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의 자본이시고 나의 재산이시고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름 위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벌게 하시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벌게 하시며, 세상 외엔 모르는 내 이웃들에게 십자가를 전함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 벌기가 계속되므로 진정한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